

# 통신비 지원에 물가 0%대...전셋값 21개월만에 최대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를 기록해 4개월 만에 최저 상승 폭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상승 폭은 축소되면서 저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휴대전화료 지원으로 공공서비스가 크게 하락했으며, 코로나19로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내려가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제약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2015=100)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0.1%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1.5%)부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4월(0.1%) 0%대로 내려앉더니 5월(-0.3%)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찍었다.

6월(0.0%) 보합을 보인 후 7월(0.3%)부터 4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9월(1.0%)에는 1%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2개월 만에 다시 0%대로 주저앉았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차 추경에 통신비 지원으로 인해 휴대전화료가 크게 하락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인하 영향으로 석유류 하락 폭도 컸다"면서 "채소류 가격은 상승 폭이 줄었지만, 과일류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3.3% 상승했다. 파(53.5%), 양파(70.7%),

과일 28.5% 상승...2011년 1월 이후 최대 폭 ↑

석유류 -14.0%·통신비 -21.7%, 물가상승 제약

전셋값 0.6%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폭

근원물가 0.3% 하락... 21년 1개월 만에 최저치

상추(-28.6%), 오이(-13.0%), 열무(-22.5%) 등을 보이면서 채소류 가격 상승률이 20.2% 상승했다. 다만 지난달(34.7%)보다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반면 사과(49.4%) 등 과일류가 28.5%로 2011년 1월(31.9%)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작황이 안 좋은 데다가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18.7%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81%포인트(p) 끌어올렸다.

돼지고기(10.0%), 국산 쇠고기(10.6%), 닭고기(-4.6%) 등 가격 상승으로 축산물 물가도 1년 전보다 7.5% 상승했다. 수산물은 1년 전보다 5.6% 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밥 소비가 늘고 음식 재료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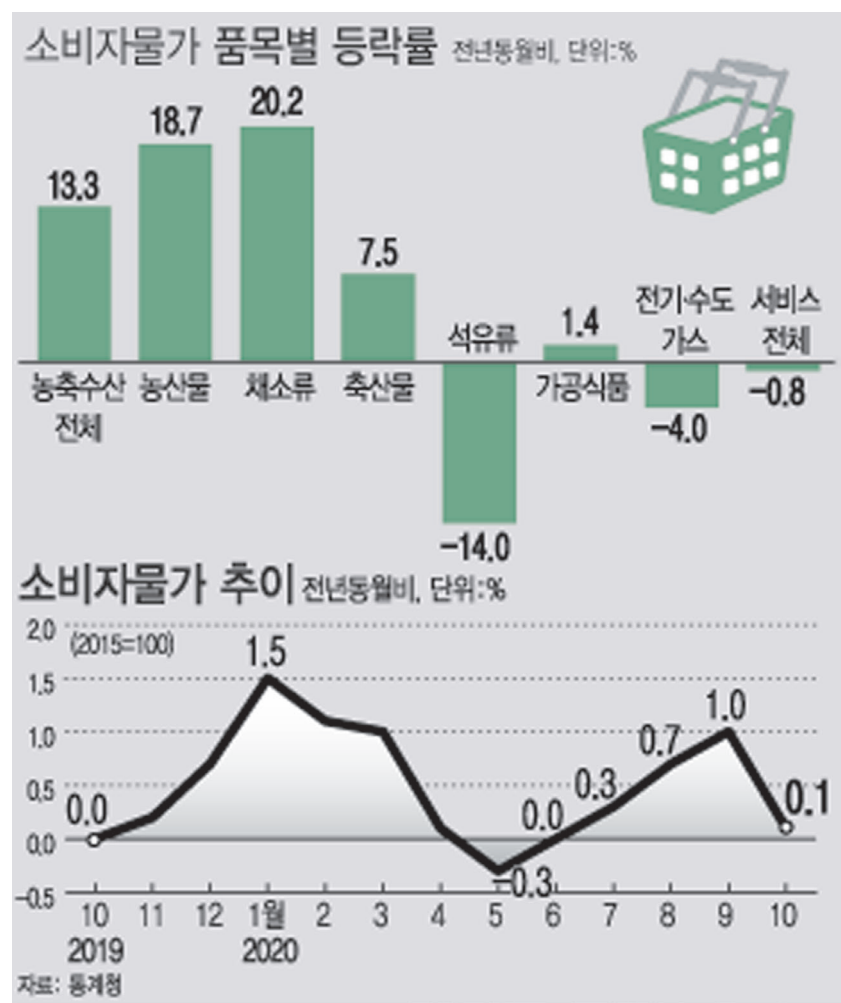
공업 제품은 전년보다 1.0% 하락했다. 가공식품은 1.4% 상승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13.5%), 경유(-18.3%), 등유(-14.8%) 등 석유류가 14.0% 하락한 원인이 컸다. 석유류는 지난 6월(-15.4%)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

로 감소했다. 도시가스(-10.3%), 지역난방비(-2.6%) 등이 인하하면서 전기·수도·가스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4.0% 하락했다.

서비스 물가도 1999년 10월(-0.9%)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0.8%를 보였다. 특히 공공서비스가 6.6% 하락하며 전체 물가 하락에 0.91%p 기여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4차 추경 예산으로 '16~34세 및 65세 이상' 대상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해주면서 휴대전화료 가격이 21.7% 하락한 원인이 컸다. 이는 1996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휴대전화료 하락이 전체 물가 하락에 0.7%p 기여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정책으로 고등학교납입금(-74.4%)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서비스는 1.4% 상승했으나 외식 물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과거에는 2~3% 상승률을 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밥 소비가 늘면서 외식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



집세도 0.5% 오르면서 2018년 6월(0.6%)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전셋값은 0.6%로 지난해 1월(-0.7%)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월세도 0.3% 올랐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7% 하락했다. 지난 6월(-0.3%) 이후 4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성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상승했다. 8월(15.8%), 9월(21.5%)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1% 상승했다. 1999년 7월(-0.2%)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작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0.3% 하락했다. 1999년 9월(-0.4%) 이후 2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안 심의관은 다음 달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 "이번 달 가장 큰 하락 요인이었던 통신비 지원은 10월 내 지원돼 다음 달 물가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제 유가 하락이 시차를 두고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듯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통신비 정상화로 상방 압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전제 양상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최근 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 가능성,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은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물가 흐름 및 물가 상·하방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봉우기자

## 인천공항 10월 여객 19만7천명...내년 전망도 '암울'

코로나19 전 하루 승객 20만명과 비슷



지난 9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 10월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20만 명을 넘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이용객 수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 인천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 20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항공업계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은 19만747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도착승객 9만2777명, 출국승객 10만4702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637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전 하루 평균 이용객 20만 명과 비교하면 96.8%가 감소했다.

지난달 항공기 운항 수는 여객기와 화물기 각각 3027편(도착 1515편, 출발 1512편)과 6416편(도착 3187편, 출

발 3229편)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여객기의 좌석을 분리해 화물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항공화물은 여객기 3만 2735t(도착 1만4448t, 출발 10만 5966t), 화물기 22만6225t(도착 10만 5966t, 출발 12만 259t) 등 총 25만 8960t(도착 12만 415t, 출발 13만 8545t)을 수송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병한 올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총 1162만 2932명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5950만 5912명과 비교해 80%가 감소한 것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630만 9369명을 시작으로 ▲2월 338만 1632명 ▲3월 60만 9516명 ▲4월 15만 3514명 ▲5월 13만 7924명 ▲6월 18만 2523명 ▲7월 21만 9153명 ▲8월 23만 4958명 ▲9월 19만 6864명 ▲10월 19만 7479명으로 승객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백화점서 추억의 문방구 세트 판매

롯데백화점 부산분점은 7층 유휴공간 매장에서 10여 종에 넘는 추억의 과거와 놀이 세트가 구성된 '추억의 문방구 세트'를 판매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서민의 발' 다마스·라보, 역사 속으로...내년 1분기 생산종료

30년간 소상공인의 발이 됐던 '다마스'와 '라보'가 내년 1분기 중 단종된다. 한국지엠은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 종료를 앞두고, 최대 72개월 장기할부

와 유류비 지원 등 다양한 구매혜택을 내놨다. 3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창원공장은 내년 1분기 다마스라보 생산 종료 후 제네럴모터스(GM)의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을 위한 제반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1991년 탄생한 다마스라보는 '작은 차, 큰 기쁨'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서민의 발로 활약해왔다. 30년간 37만 대 이상 판매되며 택배, 물류 등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다마스는 스페인어로 '친한 친구'를 뜻하며 라보는 그리스어로 '일하다'는 뜻이다. 다마스라보가 30여년간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LPG 연료의 경제성, 큰 짐도 무리없이 실을 수 있는 적재공간, 좁은길에서의 기동성 등 영세 상



인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다마스 밴모델의 경우 450kg, 라보는 55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이를 싣는 용량(20kg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22개, 27개를 실을 수 있다. 전고 역시 1,920mm에 달해 꽃집이나 퀵서비스, 푸드 트럭 등의 업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마스라보는 가벼운 공차중량 덕분에 등판 각도가 17.4도에 이르는 등 오르막에서도 여유롭게 주행할 수

있다. 최소화전반경 또한 4.4m에 불과해 좁은 골목길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보인다.

상용차로는 유일하게 다양한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별소비세, 취득세, 도시철도 채권, 승용차 10부제, 도심혼잡 통행료가 면제되며,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8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가격과 압도적 경제성으로 국내시장에서는 대체 차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10월 소비자 물가...광주 0.2%하락·전남 0.4% 상승

신선식품지수, 전년 동월 대비 19.7% 상승세

광주·전남지역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가정의 식품소비가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신선식품 가격 상승세는 지속됐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96(2015년=100)으로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다.

제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3%, 전년 동월 대비 1.4%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7% 상승세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신선어개류 3.9%, 신

선채소류 23.9%, 신선과일류 27.2% 각각 올랐다.

분야별 소비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식품·비주류 음료(7.6%), 음식·숙박(2.0%), 기타상품·서비스(1.7%), 의류·신발(1.3%), 보건(1.0%) 부문은 상승했지만 통신(-14.5%), 교통(-4.9%), 교육(-4.6%), 가정용품·가사서비스(-0.4%), 주류·담배(-0.3%), 오락·문화(-0.3%) 부문 등은 하락했다.

전남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17(2015년=100)로 전월 대비 0.6% 하락,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 0.3% 각각 하락했다.

전남도 신선식품 지수도 광주와 동일하게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까지 오른 가운데 17.6%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신선어개류 3.6%, 신선채소류 18.6%, 신선과일류 33.0% 각각 올랐다.

분야별 소비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식품·비주류 음료(8.3%), 음식·숙박(1.7%), 기타상품·서비스(1.7%), 보건(1.2%), 의류·신발(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0.1%) 부문은 상승했고 통신(-14.6%), 교통(-4.0%), 교육(-1.6%) 부문 등은 하락했다.

기동취재본부